



2013년 7월 19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7.5%로도 째째하다

• 이머징마켓 동향

상해종합 이틀째 하락, 홍콩H는 상승세 이어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세보엠이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만도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제약바이오, 자동차, 타이어, 통신서비스

LG이노텍, KT&G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7/11(목)	07/12(금)	07/15(월)	07/16(화)	07/17(수)	07/18(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77.60	1,869.98	1,875.16	1,866.36	1,887.49	1,875.48	
	등락폭	53.44	-7.62	5.18	-8.80	21.13	-12.01	
	등락종목	상승(상한)	662(4)	406(6)	438(7)	406(5)	501(0)	322(4)
		하락(하한)	157(2)	382(1)	357(1)	395(1)	297(1)	474(1)
	ADR	90.97	91.64	96.88	94.32	98.12	103.18	
	이격도	10 일	101.93	101.48	101.66	101.12	101.91	101.07
		20 일	101.90	101.54	101.84	101.46	102.61	101.89
	투자심리	40	30	40	4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31	266	330	303	383	376	
	거래대금 (십억 원)	4,000	3,491	3,187	2,999	4,022	3,468	
코스닥	코스닥지수	527.25	532.47	531.67	537.72	541.82	541.56	
	등락폭	11.61	5.22	-0.80	6.05	4.10	-0.26	
	등락종목	상승(상한)	662(7)	406(5)	438(6)	406(4)	501(7)	376(8)
		하락(하한)	157(1)	382(0)	357(0)	395(1)	297(0)	520(1)
	ADR	89.49	95.18	102.63	100.03	103.03	107.76	
	이격도	10 일	100.93	101.67	101.44	102.39	102.77	102.40
		20 일	101.48	102.52	102.29	103.42	104.11	103.90
	투자심리	40	30	40	4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69	399	367	340	326	324	
	거래대금 (십억 원)	1,502	1,508	1,639	1,823	1,910	1,63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31.4	957.0	771.2	147.4	89.5	172.4	53.4	14.5	293.985	29.9
	매도	1,616.1	1,070.3	771.2	194.1	84.3	272.8	48.7	23.3	148.0	31.8
	순매수	115.3	-113.3	0.0	-46.7	5.2	-100.4	4.7	-8.8	146.0	-1.9
	7월 누계	-262.2	-178.7	415.5	205.9	82.3	-340.3	30.8	-149.2	586.1	25.4
	13년 누계	1,841.7	-10,165.1	8,856.2	2,047.7	1,080.1	-410.2	308.4	-200.5	6,030.7	-532.8
	코스닥	매수	1,503.7	68.8	70.7	12.6	7.0	22.2	6.2	1.7	21.0
매도		1,505.9	72.9	60.6	14.3	5.3	18.2	4.5	1.3	16.9	15.5
순매수		-2.2	-4.0	10.1	-1.7	1.7	4.0	1.7	0.4	4.1	-3.8
7월 누계		-13.4	68.5	-29.2	-6.8	31.5	-14.0	-5.8	9.1	-43.3	-25.9
13년 누계		-1,024.3	862.4	725.4	-56.5	98.6	404.5	-95.8	-45.9	430.4	-563.4

CHART OF THE WEEK: 7.5%로도 째째하다

7월 월간 밴드	1,780-1,93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250pt
12MF PER	8.5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8.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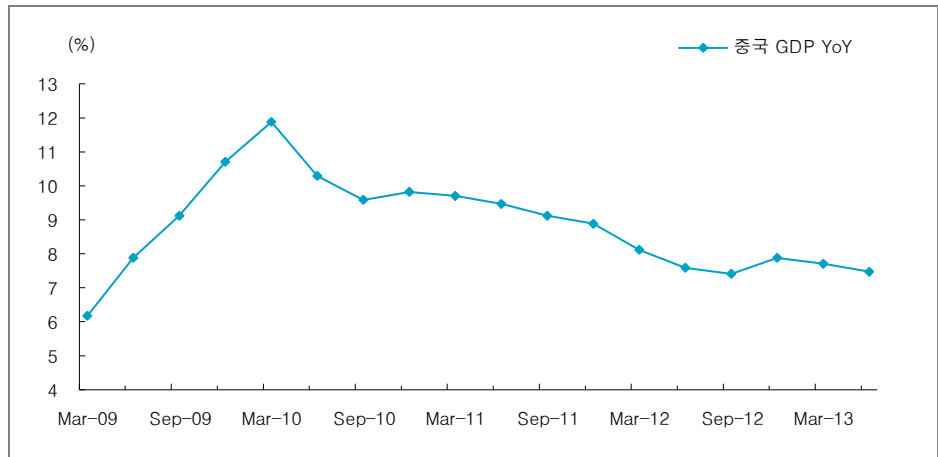
- ▶ 중국 2Q GDP 7.5%, 선행지수/FDI에 증시 반응: 호재라기 보다는 큰 악재가 아녔기 때문
- ▶ 7.5%가 여전히 째째한 이유: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세,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둔화 지속
- ▶ 중국 수요에 민감한 원자재 및 관련지표 주목: 석탄수입량, 전기생산, 고정자산투자, 조강생산

■ 7.5%로 자신감을 갖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지난 월요일,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장중에 7.5%로 발표되면서 증시는 상승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중국 경제성장률은 하향추세로 접어든 것이 분명하다. 다만 낮아진 기대치라도 충족했다는 점, 그리고 7.5%가 주는 일종의 심리적인 다행스러움 때문인지 시장은 ‘안도’로 반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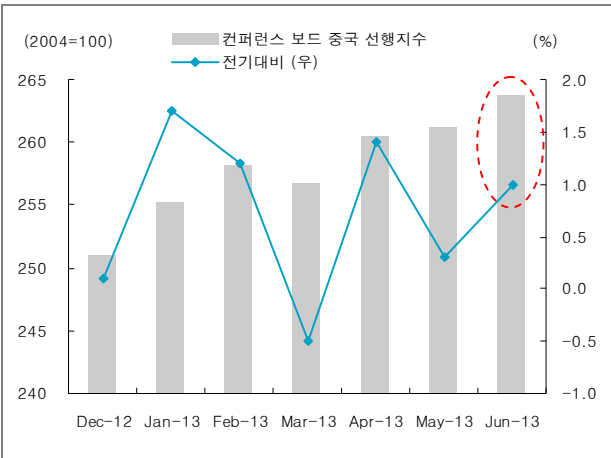
수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중국 선행지표가 전월대비 1.0% 상승했다는 소식과 함께 FDI도 전년동기대비 20%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증시는 또 한번 급반등했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중국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던 상황에 들려온 반가운 뉴스다, 그러나 7월 그리고 3분기 중 상단을 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했던 중국 인만큼 쉽사리 아직 ‘워치 리스트’에서 지우기 힘들다.

[그림 1] 중국 분기별 GDP 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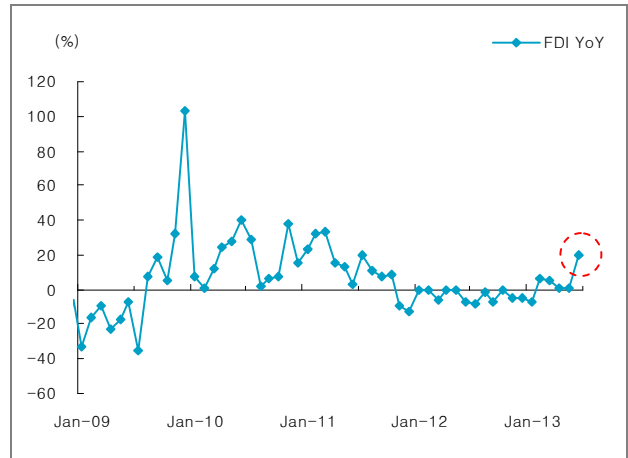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컨퍼런스 보드 중국 선행지수 및 전기대비 추이



자료: 컨퍼런스 보드,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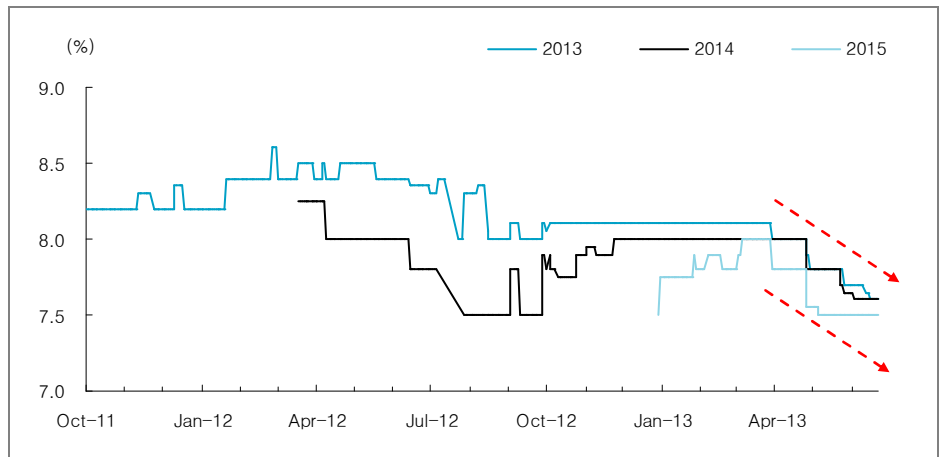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FDI YoY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이번주 CHART OF THE WEEK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몇개의 차트를 통해 중국 상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우선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부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하게 하락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3월말 8%대 수준이었던 13/14/15년 전망치는 이후 줄줄히 하향조정되었고, 2013년 전망치의 경우 현재 7.6%까지 떨어졌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7.5%까지 떨어진다면 3~4분기의 성장률에서 7.5%를 하회하는 숫자를 보게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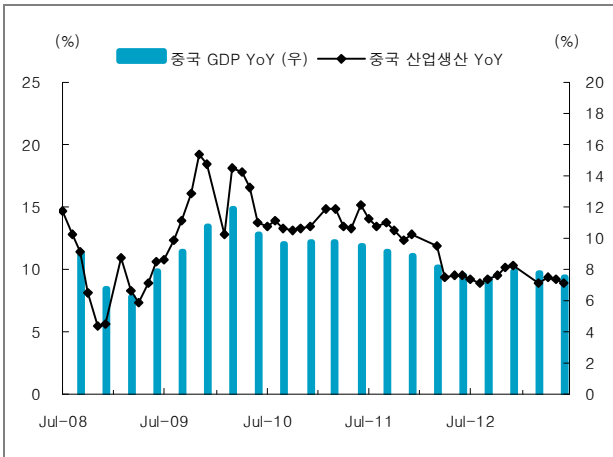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연도별 GDP 성장률 전망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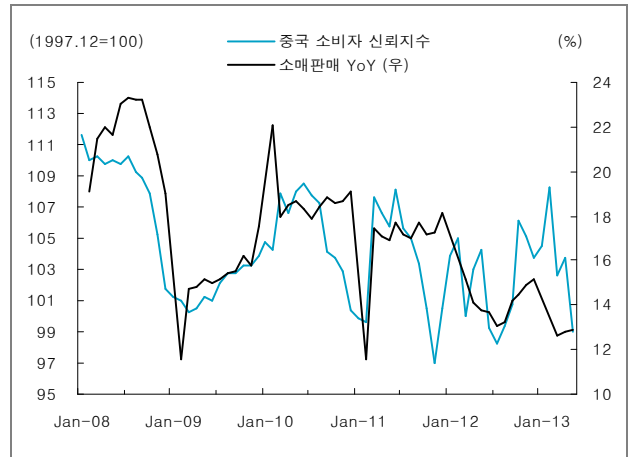
결국 2분기 성장률이 7.5% 숫자가 더 낮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일 뿐, 그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 산업생산추이는 GDP 성장률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움직여왔는데, 산업생산지표의 주거나 수치 발표의 시차를 고려하면 산업생산 둔화가 지속될 경우 3분기 성장률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도 최근 크게 하향전환했다는 점, 소매판매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기의 변곡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5] 중국 GDP YoY 및 산업생산 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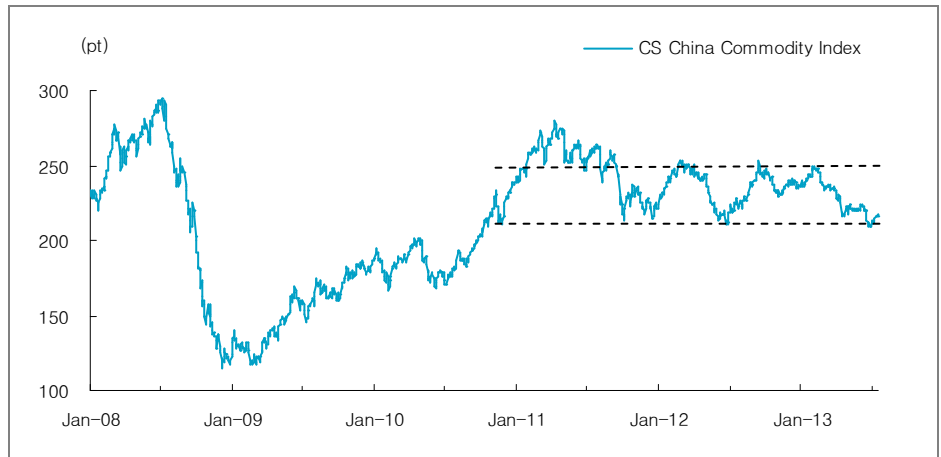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 및 소매판매 YoY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CS 중국 원자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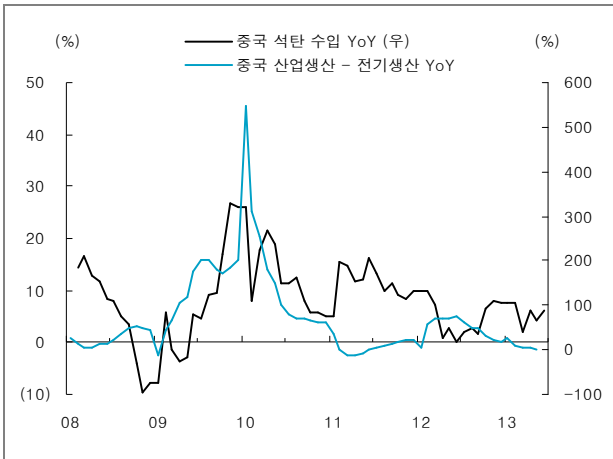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원자재 가격도 중국 전반의 경기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지표다. [그림 7]의 CS 중국 원자재 지수는 중국 수요에 민감한 대표 원자재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의 가격 흐름을 지수화하여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박스권을 유지하고있으며, 최근 박스권 하단에서 미미한 반등 정도만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이 지수의 흐름만으로 중국 경기 부진을 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중국 관련 대표 원자재인 석탄, 철강 등 관련 지표를 따로 살펴보아도 중국 경기 반전 흐름을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 석탄 수입량, 그리고 이와 연관성을 갖는 전기생산 추이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급락한 호주달러는 중국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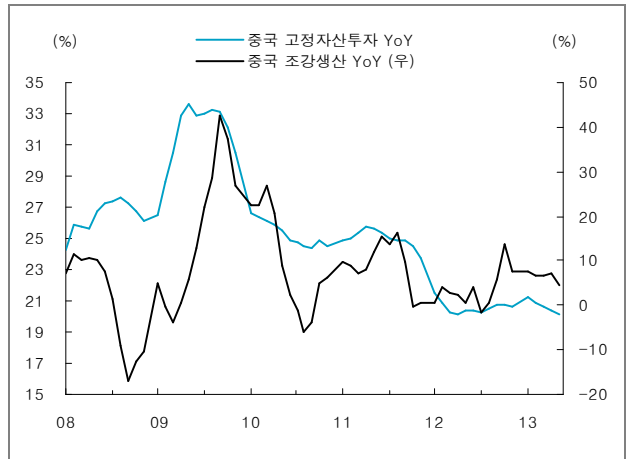
한편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지금까지의 중국 경제성장에 끼친 큰 기여도도 그렇지만, 성장률 방어를 위해 필요하며 손쉬운 수단이다. 중국의 잠재적 인프라 투자 기회는 아직 많지만, 지방정부채무 이슈, 신용거품우려, 그리고 정부의 경제개혁의지가 충만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다. 결국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속도조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철강생산은 고정자산투자 증가 속도 감소와 더불어 업계 전반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하반기 기대감을 다소 낮추는 요인이다.

[그림 8] 중국 석탄수입 YoY 및 전기생산 YoY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중국 고정자산투자 YoY 및 조강생산 YoY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상해종합 이틀째 하락, 홍콩H는 상승세 이어져

- ▶ IMF가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버블 등 3대 리스크 경고, 상해종합 이틀 연속 1%이상 하락
- ▶ 부동산가격 12개월째 상승세, 7월 중순 예금규모 급감 등이 악재로 작용
- ▶ 홍콩H, 해외변수 개선 및 실적 개선 전망에 힘입어 이틀 연속 강세

상해종합 이틀 연속 급락
석탄, 건설자재, 보험, 은행,
비철금속 등 업종 약세 뚜렷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1.1% 하락했다. 이틀 연속 급락으로 10거래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한 후 장중에 하락 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770억위안으로 전날의 880억보다 축소됐다. 7월 중순에 은행 예금규모가 6월말 대비 1조위안 이상 급감했다는 소식으로 은행주가 2% 이상 급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IMF가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버블 등 3대 리스크를 경고한 가운데 6월 부동산가격이 12개월째 상승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부동산업체의 증가가 3년 만에 재개됐고 부동산 부문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정책호재가 있었지만 부동산 업종은 급락세로 마감했다. 어닝시즌을 맞아 실적을 공시한 첫번째 기업인 안치자오무의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40% 급감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업종별 하락률은 석탄(-2.6%), 건설자재(-2.3%), 보험(-2.2%), 은행(-2.2%), 비철금속(-2.2%), 증권(-1.6%), 부동산(-1.4%), 철도운송(-1.4%), 항공(-1.1%), 석유(-0.8%) 등이었다.

홍콩H 이틀 연속 상승
석유, 석탄, 철도, 음식료,
기계 등 업종 상승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해 본토증시와 엇갈린 흐름이었다. 미국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당분간 지속할 것임을 밝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5년까지 중국이 7.0~7.5%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Fitch사의 낙관적인 전망도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중국 은행권의 예금 급감, 대출만기 도래에 따른 기업 부채상환 압력 급증 등으로 자금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6월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정책불확실성도 악재였다. 업종별로는 석유, 석탄, 철도, 음식료, 기계, 보험, 증권, 전력 등이 상승했던 반면 자동차, 시멘트, 은행, 비철금속 등은 하락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18(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23.40	-1.05	-2.39	2.23	-10.83
홍콩 H	9,492.07	0.12	-0.62	1.94	-17.00
인도 SENSEX	20,022.39	0.37	1.76	3.23	3.07
러시아 RTS	1,385.42	-0.55	4.74	8.62	-9.27
브라질 보베스파	47,407.31	1.15	4.23	-0.10	-22.22
베트남 VN	496.84	-0.13	2.55	3.27	20.09
MSCI 이머징마켓	959.37	0.67	1.75	2.02	-9.08

주: 18일 오후 5시 35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며 양지수 모두 하락

- 미국증시는 지난달 주택착공 건수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며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유지 발언에 힘입어 상승 마감.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로 1,870P까지 하락했으나,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다소 만회, 1,875P로 마감. 반면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수세로 맞서며 주가를 방어, 강보합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은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 확대 및 6월 전력판매수입 증가 소식에 강세를 보였으며, 주력제품인 'Why 시리즈'의 해외판매 확대 기대감에 예림당이 급등세를 나타냄. 소프트맥스는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며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으며, 신약 개발, 신제품 판매 등에 따른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제약주들의 강세가 돋보임.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의 실무회담 합의 실패 소식에 대북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으며, 자회사의 영업정지 소식에 태산 엘시디는 하한가를 기록

종목/이슈	내 용
한국전력(015760) ▶29,000(+3.39%)	6월 전력 판매수입 증가 소식에 강세 - 6월 전력 판매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3조5,889억원을, 전력판매량은 3만7,366GWh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 - 아울러, 국민연금이 3,305만5,017주를 추가 취득해 보유 지분을 10%로 확대한다는 소식과 9월 요금 인상 재협상 기대감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
예림당(036000) ▶5,600(+7.90%)	'Why시리즈'의 영문판 판매 임박 소식에 급등세 - 주력 제품인 'Why시리즈'의 영문판 판매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아울러, 미국 유명 출판사 맥그로힐이 유통 및 판매에 가세함에 따라 해외 판매 확대 기대 - 'Why시리즈'는 동사가 100% 저작권을 보유한 자체 콘텐츠로서, 인세 비용 없이 30%대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해 판매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 전망
 제약주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강세 - 올 2분기는 지난해 4분기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시행 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분기로, 최근 신약 개발, 신제품 출시 등에 따른 실적 호조 전망에 강세 - 광동제약(009290, +11.34%), 동아에스티(170900, +7.03%), 서울제약(018680, +8.53%), 유나이티드제약(033270, +5.47%), 한미약품(128940, +4.81%)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골프존(121440) ▶71,200(+2.45%)	- 장마철 수혜 및 3분기부터 라운드당 네트워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200% 무상증자를 결정한 가운데 다음달 12일 2,546만여주의 신주 발행 예정
CJ E&M(130960) ▶40,600(+4.50%)	- 신작영화 '설국열차'의 흥행 기대감 및 인기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차차차2 씬바' 흥행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서흥캡셀(008490) ▶31,100(+3.32%)	- 가격과 품질 경쟁력 등으로 국내 하드캡슐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9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증설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세보엠이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세보엠이씨 (011560)	4,645 (+5.2)	4,415 (7/11)	- 배관 및 덕트(Duct;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설비 시공 국내 1위 업체로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예상 - PSP(볼소수지코팅덕트), 유기배기덕트 등 신제품 판매 증가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최근 화학물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IT/화학업체들의 노후시설 교체 수요 증가 기대
비아트론 (141000)	16,500 (-0.9)	16,650 (7/02)	- 열처리 공정 관련 장비제조 업체로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SMD, LGD, BOE 등 다수의 글로벌 패널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 - 인라인형과 배치형 열처리 장비를 모두 제조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 증가에 따른 수주 및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신세계푸드 (031440)	88,000 (-9.5)	97,200 (6/20)	- 규제 리스크 등으로 단기 업황은 부진하나 산업의 성장성, 생산설비 확충, captive market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올해 말로 예정된 음성 공장 가동으로 이마트 향 HMR(Home Meal Replacement) 및 PL상품의 매출 확대에 따른 성장성과 함께 제품믹스 개선 및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 내재
현대차 (005380)	221,000 (+8.6)	203,500 (6/13)	- 가동률 상승과 해외공장 볼륨 증대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증설 및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유효 - 엔저 및 글로벌 경쟁격화, 노조 문제 등에 따른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 정상화 가능성 상존
시그네틱스 (033170)	2,875 (-13.7)	3,330 (5/22)	- 반도체 수급 개선 및 모바일 수요 확대에 따른 패키지 외주 주문량 증가 추세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 가동률 회복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 고부가가치 High-end 제품 비중 확대, 시스템 LSI투자 확대, 고객 다변화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내재
한국타이어 (161390)	56,500 (+18.0)	47,900 (5/02)	- 투입원가 하락과 브랜드 입지 및 Product mix 개선 등으로 1분기 수익성 개선 - 미국 내 경쟁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국 시장 회복 본격화 예상 - 글로벌 점유율 개선과 견고한 이익 안정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현대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비아트론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만도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만도 (060980)	112,500 (+5.1)	107,500 (7/11)	5,730	344	242	13,426	8.4
- 한라건설과 관련한 재무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주 매출처의 공격적인 증설과 점유율 상승,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매출처 다변화,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 확대, 전장제품 매출 비중 확대 등에 따른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상존							
NHN (035420)	288,000 (-1.5)	292,500 (6/13)	2,980	842	638	14,661	19.6
- '라인'의 글로벌 가입자 기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PC 온라인 게임 매출 개선, 자체 개발 모바일 게임들의 흥행 성공, 모바일 검색광고의 성장세 등을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005930)	1,292,000 (-15.0)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6.4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3,995 (-0.6)	4,020 (4/11)	789	62	63	673	5.9
- 유아 및 초등학교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201,500 (+8.3)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6.3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69,900 (-9.9)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1.3
- 2012년 휴대폰 부분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전자,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2Q13 Preview: 외형 둔화하나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 2Q13 Preview: 외형 둔화, 영업이익 개선 추세는 지속

상위 7개 제약사의 2분기 합산 매출은 전년대비 2.1%, 영업이익은 60.9% 증가가 예상된다. 매출은 시장기대치대비 2.7% 하회하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매출 둔화요인은 전년동기 유통재고를 채우기 위한 가수요 효과로 일부 회사들의(한미약품 등) 매출기저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약가인하 시행으로 낮아진 기저효과와 판매비통제 등에 힘입어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낼 것이다. 1분기에 이어 유한양행의 실적모멘텀이 가장 좋고, 종근당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관련 마케팅 위축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 유한양행과 종근당 선전, 나머지 업체들 실적개선 및

유한양행은 신규품목도입 강세와 기존품목 매출 성장 회복으로 가장 높은 외형 성장세를 시현할 것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인건비 요인(영업사원 인센티브 상반기 일괄집행 등)으로 시장기대치대비 3.7% 하회한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1분기 실적부진에서 벗어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다. 종근당은 R&D 비용확대와 인력 충원에 따른 우려에도, 신제품과 판매비통제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1.5% 증가할 것이다. 녹십자의 경우 실적부진이 지속되나, 고마진 제품(수출 포함)의 상대적인 선전으로 1분기 영업이익 역성장에서 2분기 2% 플러스 성장(시장기대치 10% 상회)으로 전환이 예상된다.

■ 2013년 업종 영업이익 추정치 9.8% 하향, 동아에스티와 대응제약 목표주가 하향조정

상반기 누적 실적과 2분기 시장 기대치 하회 등을 반영하여, 6개 제약회사의 2013년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8%, 9.8% 하향한다. 영업이익 하향폭이 큰 회사는 LG생명과학(22.8%, 신제품 마케팅 비용), 동아에스티(21.1%, 상반기 국내 실적 부진), 녹십자(9.7%, 국내 성장둔화와 R&D 비용 부담) 순이다. 실적 하향조정을 감안하여 동아에스티의 목표주가를 기존대비 19% 하향한 190,000원(세금추징을 제외한 2013년 EPS 기준으로 30배)으로 하향한다. 대응제약의 목표주가가 95,000원에서 82,500원으로 하향한다. 영업이익 하향폭은 크지 않으나 제약업종의 PER 하락(28.5배 → 23.5배)을 감안하여 목표 PER을 하향(업종평균대비 30% 할인, 18배 → 16배)했기 때문이다. 녹십자와 유한양행의 경우, 실적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변동폭이 10% 미만이라 기존 목표주가를 유지한다.

■ 유한양행 Top pick, 동아에스티와 녹십자는 연말 바닥반등 기대하며 차선호주 유지

오랜 랠리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제한적인 2분기 실적모멘텀으로 업종 주가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실적모멘텀과 valuation에 근거한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실적모멘텀이 좋은 유한양행과 종근당(NR)의 추가흐름이 양호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체 제약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제약업종의 주가 상승 변수인 신약파이프라인(해외수출 등) 이벤트가 연말부터 가시화되고, 주가 조정으로 valuation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장단기 실적모멘텀이 좋은 유한양행을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동아에스티와 녹십자의 경우 실적부진으로 단기 투자매력은 떨어지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선호주로 유지한다. 약재관련 주가조정이 일단락되었고, 신약파이프라인 모멘텀과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면, 연말 전후로 주가 바닥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동차: Big 4 중 상반기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

■ 상반기 판매대수 증가율 7.1%

현대, 기아는 상반기에 글로벌 완성차업체 Big 4 중 가장 높은 판매대수 증가율 달성을 재개했다. 양사는 12년에는 Toyota와 VW에 추월 당했지만 08년부터 11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다. 현대, 기아 합산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했으며 VW 5.5%, GM 4%가 그 뒤를 이었다. Toyota는 아직 상반기 판매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1분기에만 4.9% 감소했다. 일본 정부가 12년 10월에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내수판매가 부진했고 중국판매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대와 기아의 글로벌 점유율은 8.7%에서 9.1%로 상승해 주요 완성차업체들과의 격차를 다시 한 번 줄였다. 경쟁사와 비교해서 중국을 필두로 BRICs에서 더 높은 성장을 달성했고 유럽시장에서도 선전했기 때문이다.

■ BRICs 점유율 상승

현대의 상반기 판매는 238만대(+9.4% YoY)로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중국(510,842대, +37% YoY) 및 브라질(99,504대, +131.9%) 판매가 견인했다. 인도(-4.9%) 판매가 감소했고 러시아(+0.2%) 판매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중국 및 브라질 판매 초강세로 상반기 BRICs 판매는 897,089대(+25.9% YoY)를 기록했다. 현대의 인도 및 러시아 시장 점유율도 각각 14.5% → 15.4%, 6.3% → 6.7%로 상승해 상반기 BRICs 시장 모두에서 점유율이 올랐다. 기아는 유럽시장 점유율(2.5% → 2.7%)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중국 및 러시아 시장 점유율도 각각 2.3% → 2.6%, 6.4% → 7.1%로 상승했다. 이로써 기아의 BRICs 판매 역시 386,143대로 전년동기대비 16.4%나 증가해 전체 판매 증가율 3.5%를 주도했다.

■ 가장 높은 성장률 지속될 전망

가장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1) capa 확장, 2) 지속적인 신모델 출시, 3) 우호적인 환율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현대 239만대(+7.2% YoY), 기아 142만대(+7.8% YoY) 판매가 예상되며 양사 합산 판매 증가율은 7.4%로 상반기 7.1%보다 높을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2개의 부분변경 모델(Sportage, Avante)과 함께 2개의 신모델(신형 Soul, 신형 Genesis)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와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280,000원(12MF PER 9배 적용, 역사적 평균)과 79,000원(12MF PER 8배, 업종 평균 PER)을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타이어: 심증이 물증으로

■ 중국 타이어 재고 감소

전일 발표된 5월 중국 타이어 재고는 45,689백만 위안(8.3조원, 2012년 매출액의 19.2%)으로 4월보다 3.4% 감소했다. 5월 생산량이 전월보다 5% 증가했음에도 재고가 감소한 핵심 원인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7.9% MoM, 161백만 달러). 이는 2012년 9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가 정상수준으로 원복된 이후(25% → 4%)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2.10~2013.5월 누적기준으로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급증했다.

■ 재고 감소는 하반기 업황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

중국의 재고 감소는 하반기 글로벌 타이어 업황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다. 이는 미국의 보호관세에 3년간 억눌려 있다가 분출된 중국의 재고소진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재고는 2011년에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25.7%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14.6%의 증가로 그 폭이 줄었고 2013년 4월에는 처음으로 1.7%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타이어 재고/생산 비율이 5월 19.2%에서 하반기에 1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글로벌 타이어 시황은 바닥을 통과 중

유럽과 미국의 타이어 시황도 현재 바닥을 지나고 있다. 미셸린 시장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미국의 교체용 타이어 업황 지수는 2년간 하락 후 2013년 5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6월 현재 92.3이다. 유럽의 교체용 타이어 지수 또한 2년간 약세를 면치 못했으나 4월부터 회복 중이다. 상반기 내내 주요국가의 타이어 가격지표는 하락을 지속했다. 그러나 3분기에 현 수준에서 숨을 고른 후, 4분기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 타이어 주의 투자매력 높아

현 시점에서 타이어 주의 투자매력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한다. 긴 부진의 사이클을 끝내고 업황 회복을 앞두고 있을뿐더러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이익의 하방경직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Top pick으로는 불황기에 더욱 돋보이는 브랜드파워를 입증한 한국타이어(12MF기준 8.6배)를 추천한다. 현재 PER은 2009년 업황 사이클 저점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1년 수요회복기에는 12~14배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현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통신서비스: 방통위의 강력한 보조금 제재로 마케팅 비용 절감 예상

■ 18일 방통위가 KT에 7일간 영업정지, 3사에 과징금 670억원 부과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64.6억원, 202.4억원, 102.6억원 등 총 6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과열기간(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16일간)에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7일간(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영업정지도 부과했다. 이 기간 중에는 기존 가입자의 전화기 변경은 가능하나 신규 가입자 유치가 금지된다.

■ KT, SKT, LGU+ 순으로 비용 부담이 있음

금번 제재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순으로 손익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KT는 7일간의 영업정지 기간 중 7.5만명(5 영업일, 1일 평균 1.5만명 이탈)이 이탈할 것으로 추정된다. KT가 이후 이탈한 7.5만명을 만회하려면 187.5억원(가입자당 유치비용 25만원 가정)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KT의 과징금과 가입자 이탈에 따른 손실을 합한 비용은 389.9억원으로 13년 영업이익 대비 2.9% 수준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징금은 영업이익 대비 각각 1.8%, 1.7% 순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로부터 가입자를 유치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 금번 제재는 보조금 억제 효과가 커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

과징금은 일시적인 부담일 뿐 금번 방통위 제재는 통신업체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사에 영업정지를 부과한 12년 12월 제재 효과는 미미했으나 금번 제재는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해 보조금 규제 효과가 클 전망이다. 또한 곧바로 시장조사에 착수해 경쟁 차단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6월 26일 SK텔레콤에 이어 7월에 LG유플러스가 LTE-A를 출시하는 데다 KT가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 마케팅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금번 제재는 이러한 우려감을 해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케팅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적 호전, 배당메리트로 비중확대 의견 유지

통신주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통신주는 경기 하강기에 방어적 성격이 돋보인다. 과열 경쟁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마케팅비용이 줄고 수익이 호전될 것이다. 8월 주파수 경매는 불확실성 요인이나 적정 수준에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개 통신업체의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은 가입자당 매출(ARPU) 증가와 마케팅비용 감소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6%, 11.3% 증가할 것이다. LTE-A 등 2배 빠른 LTE 서비스는 데이터 이용 증가로 매출을 늘릴 전망이다. 2년 평균 EPS 증가율 32.6%을 감안하면 12MF PER 8.9배는 낮아 보인다. 배당수익률이 3~6%에 달해 하반기에 배당메리트가 부각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이노텍(011070)

매수(유지)
목표가: 110,000원(유지)
종가(7/17): 89,900원

2Q13 Preview: 주가의 하방경직성은 확보했지만...

■ 2분기 영업이익은 최근의 시장컨센서스를 상회하는 330억원으로 추정

2분기 LG이노텍의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3% 증가한 1.6조원, 영업이익은 대폭 증가한 330억원으로 추정된다. 분기 초의 예상과 달리 LED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저조하여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었지만, 최근의 시장컨센서스 영업이익인 316억원을 소폭 상회하여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1)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전 부문에 걸쳐 우호적 영향을 가져왔고, 2) 품질 개선에 따른 고객사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package 부문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 등이 컨센서스 상회의 주요한 요인들로 추정된다.

■ PCB와 Package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하지만 LED와 카메라모듈은 부진한 실적

2분기에 A사의 물량 감소(QoQ)가 나타났지만 LG전자 스마트폰의 출하대수 증가(QoQ)로 PCB는 적자폭이 축소되었고, 주요 고객사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통해 package는 전분기대비 34%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LED TV의 수요 부진, 대당 장착개수의 감소, 조명용 LED의 강한 단가인하 효과로 LED는 여전히 두 자릿수(-13%)의 부진한 영업적자율을 기록했고, A사와 다른 해외 휴대폰 업체들로부터의 주문이 계속 부진하여 카메라모듈은 전분기대비 하락한 3.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3분기에 성수기 효과는 존재하지만 예년보다는 약할 전망

3분기에는 TV, 휴대폰, PC가 성수기를 맞이하고 또한 LG이노텍의 경우 전방업체인 LG전자의 휴대폰/LED TV 출하대수의 증가, A사의 신규 아이폰/아이패드 출시 등을 통해 부품 주문의 증가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PCB, 카메라모듈, 터치패널, package 등의 모바일 관련 부품들의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LED의 경우 3분기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할 전망이다). 다만 A사의 신규 모델의 출시 시점과 판매 물량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LG이노텍의 3분기 성수기 효과는 예년보다 약할 전망이다.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1.8조원으로, 영업이익은 57% 증가한 518억원으로 전망)

■ 주가의 하방경직성은 확보했지만, 주가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 역시 110,000원을 유지한다. 2분기 중간에 발생했던 실적 실망감에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고, 분기별 영업이익 추세도 다른 IT업체와 달리 증가 추세임에 따라 지금의 주가는 하방경직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LED의 개선 속도가 약하고 3분기 성수기 효과가 예년보다 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가 회복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3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6%, 102% 증가한 6.7조원과 1,525억원으로 전망한다. (2013년 실적 기준 PBR은 1.3배 수준)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4,553	(45)	(174)	(145)	(7,211)	NM	374	NM	8.4	1.0	(10.4)
2012A	5,316	77	(18)	(25)	(1,240)	NM	549	NM	6.3	1.3	(1.9)
2013F	6,699	152	61	54	2,686	NM	659	32.8	5.1	1.3	4.2
2014F	7,747	380	292	260	12,868	379.0	898	6.8	3.6	1.1	17.9
2015F	8,723	490	400	356	17,642	37.1	1,022	5.0	2.9	0.9	20.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G(033780)

매수(유지)
목표가: 86,000원(하향)
종가(7/17): 76,700원

성장통(成長痛)

■ What's new : 담배 수출과 홍삼 부진으로 영업이익 8.5% 감소

2분기 연결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0%, 8.5% 감소해 우리의 예상에 부합했으나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다. 한국인삼공사(이하 KGC)는 경기 부침이 심한 제품의 특성 상 1분기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으나, 담배부문이 이를 만회하지 못한 것이 시장 기대와 달랐다. 담배 내수가 1분기의 세금 인상을 기대한 가수요의 반대 영향으로 시장이 축소됨과 동시에 동사의 점유율이 하락했고, 해외 판매도 이란의 경제 제재로 악화됐다. 영업외수지에서는 외화자산 관련 이익이 161억원 증가했다.

■ Positives : 영진약품 실적 개선, 담배 점유율도 우려할 수준 아님

영진약품도 항생제 수출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다. 도매상과의 가격 협상 지연으로 1분기에 판매가 없었던 러시아법인 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이 두 자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57억원 증가해 연결영업이익 감소폭을 14.2%에서 8.5%로 줄이는데 기여했다. 2분기 담배 내수 점유율은 61.4%를 기록해 전분기 63.6%(2Q12 63.0%) 대비 하락한 이유는 1분기에 회전율이 가장 높은 동사 제품 위주로 선취매가 있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 이러한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면 2분기 점유율은 6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의 기존 전망치인 연간 60.9%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 Negatives : 해외 담배와 부문과 홍삼 부진 지속

해외시장 매출액(수출과 현지법인 총 포함)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1,15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특히 이란에서의 경제 제재로 야기된 통화약세로 인한 수입품 판매 급감이 원인이다. KGC 역시 국내 소비심리 위축, 해외 재고 관리에 따른 수출액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17.5%, 19.4% 감소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해외 담배 판매는 당분간 부진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KGC의 실적은 낮은 기저 영향으로 3분기부터 소폭 증가세(+5.0% YoY)를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 결론 : 목표주가 86,000원으로 하향, 배당 메리트 부각 기대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92,000원으로 86,000원으로 6.5% 하향한다. 담배 수출과 KGC의 실적을 하향해 2013년과 2014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대비 각각 14.6%, 10.0% 낮추나, 기간 경과로 DCF로 평가한 영업가치 축소가 제한적이었다. 하반기에는 담배도 2분기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고, 2009년 수준의 분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GC의 실적도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개선될 것이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4.4%로 기대되는 점도 주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2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14.6	914.5	(0.0)	968.7	2.1	(9.0)	3,628.2	3,963.4
영업이익	248.8	248.7	(0.0)	267.1	(0.0)	(8.5)	978.0	1,040.2
영업이익률(%)	27.2	27.2	0.0%p	27.6			27.0	26.2
세전이익	270.7	266.1	(1.7)	281.1	(5.2)	(9.6)	941.9	1,081.8
순이익	192.7	192.7	(0.0)	202.7	(2.9)	(8.5)	680.2	776.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7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7/11(목)	07/12(금)	07/15(월)	07/16(화)	07/17(수)	07/18(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77.60	1,869.98	1,875.16	1,866.36	1,887.49	1,875.48	
	등락폭	53.44	-7.62	5.18	-8.80	21.13	-12.01	
	등락종목	상승(상한)	662(4)	406(6)	438(7)	406(5)	501(0)	322(4)
		하락(하한)	157(2)	382(1)	357(1)	395(1)	297(1)	474(1)
	ADR	90.97	91.64	96.88	94.32	98.12	103.18	
	이격도	10 일	101.93	101.48	101.66	101.12	101.91	101.07
		20 일	101.90	101.54	101.84	101.46	102.61	101.89
	투자심리	40	30	40	4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31	266	330	303	383	376	
	거래대금 (십억 원)	4,000	3,491	3,187	2,999	4,022	3,468	
코스닥	코스닥지수	527.25	532.47	531.67	537.72	541.82	541.56	
	등락폭	11.61	5.22	-0.80	6.05	4.10	-0.26	
	등락종목	상승(상한)	662(7)	406(5)	438(6)	406(4)	501(7)	376(8)
		하락(하한)	157(1)	382(0)	357(0)	395(1)	297(0)	520(1)
	ADR	89.49	95.18	102.63	100.03	103.03	107.76	
	이격도	10 일	100.93	101.67	101.44	102.39	102.77	102.40
		20 일	101.48	102.52	102.29	103.42	104.11	103.90
	투자심리	40	30	40	40	50	40	
	거래량 (백만 주)	369	399	367	340	326	324	
	거래대금 (십억 원)	1,502	1,508	1,639	1,823	1,910	1,638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기 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유가증권	매수	1,731.4	957.0	771.2	147.4	89.5	172.4	53.4	14.5	293.985	29.9
	매도	1,616.1	1,070.3	771.2	194.1	84.3	272.8	48.7	23.3	148.0	31.8
	순매수	115.3	-113.3	0.0	-46.7	5.2	-100.4	4.7	-8.8	146.0	-1.9
	7월 누계	-262.2	-178.7	415.5	205.9	82.3	-340.3	30.8	-149.2	586.1	25.4
	13년 누계	1,841.7	-10,165.1	8,856.2	2,047.7	1,080.1	-410.2	308.4	-200.5	6,030.7	-532.8
코스닥	매수	1,503.7	68.8	70.7	12.6	7.0	22.2	6.2	1.7	21.0	11.7
	매도	1,505.9	72.9	60.6	14.3	5.3	18.2	4.5	1.3	16.9	15.5
	순매수	-2.2	-4.0	10.1	-1.7	1.7	4.0	1.7	0.4	4.1	-3.8
	7월 누계	-13.4	68.5	-29.2	-6.8	31.5	-14.0	-5.8	9.1	-43.3	-25.9
	13년 누계	-1,024.3	862.4	725.4	-56.5	98.6	404.5	-95.8	-45.9	430.4	-563.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5,640	전기,전자 -40,056
기계	1,442	화학 -14,653
제조업	1,271	서비스업 -10,678
KT	5,914	삼성전자 -9,466
삼성중공업	2,589	삼성전자우 -7,146
대우조선해양	2,439	한국전력 -7,002
호텔신라	1,870	LG디스플레이 -6,851
두산인프라코어	1,862	SK하이닉스 -6,65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8,968	건설업 -1,273
운수장비	22,426	증권 -957
전기,전자	21,936	제조업 -574
삼성전자	21,016	LG디스플레이 -8,091
LG화학	8,998	롯데쇼핑 -3,453
현대차	8,495	우리금융 -2,508
현대모비스	7,028	현대미포조선 -2,130
SK텔레콤	4,765	현대산업 -2,02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309	철강및금속 -4,686
음식료품	257	유통업 -2,938
증권	170	전기,전자 -480
삼성전자	1,699	POSCO -4,747
KODEX 200	778	삼성물산 -2,789
GS	503	삼성SDI -2,025
KODEX 레버리지	408	SK하이닉스 -952
삼성전자우	389	엔씨소프트 -906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10,460	전기,전자 -15,744
보험	7,663	금융업 -3,796
전기가스업	5,958	운수장비 -2,925
KT	11,870	LG디스플레이 -6,141
한국전력	5,648	현대미포조선 -3,703
삼성생명	5,097	SK하이닉스 -3,608
삼성물산	3,353	삼성SDI -3,011
삼성화재	1,875	삼성테크윈 -2,55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1,936	전기,전자 -58,222
통신업	17,068	건설업 -6,224
기계	9,093	철강및금속 -5,090
KT	19,800	KODEX 200 -44,932
KODEX 인버스	9,894	KODEX 레버리지 -36,908
삼성전자	8,771	SK하이닉스 -23,775
현대모비스	8,124	LG디스플레이 -17,126
호텔신라	6,852	현대미포조선 -10,011
두산인프라코어	6,389	기아차 -8,217
한국전력	6,077	삼성전자우 -8,125
LG화학	5,867	삼성SDI -7,061
대우조선해양	4,788	삼성테크윈 -5,928
락앤락	4,348	LG전자 -5,83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38,039	전기,전자 -59,109
전기가스업	22,956	서비스업 -30,506
철강및금속	(64)	금융업 -17,709
SK하이닉스	50,294	삼성전자 -110,474
KODEX 200	41,516	LG디스플레이 -16,644
기아차	40,981	KT -13,394
삼성SDI	35,742	현대모비스 -12,178
한국전력	19,848	LG전자 -11,390
현대차	16,303	호텔신라 -9,968
SK텔레콤	6,440	KODEX 레버리지 -8,520
삼성테크윈	4,664	LG화학 -8,026
LG유플러스	3,943	NHN -7,439
POSCO	3,406	삼성화재 -7,01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961	기계,장비	-1,367
사업지원	1,905	운송장비,부품	-917
디지털컨텐츠	1,652	출판,매체복제	-415
위메이드	1,759	CJ오쇼핑	-742
하나투어	1,252	윈스테크넷	-587
OCI머티리얼즈	731	위닉스	-554
모두투어	711	성우하이텍	-525
뉴웍스	677	매일유업	-481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2,263	기계,장비	-1,019
통신서비스	1,926	음식료,담배	-941
전문기술	1,430	금속	-393
SK브로드밴드	1,926	매일유업	-870
CJ E&M	1,250	소프트맥스	-617
유진테크	1,012	젼백스	-410
OCI머티리얼즈	604	엘엠에스	-315
위메이드	601	실리콘웍스	-30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496	오락,문화	-546
전문기술	172	디지털컨텐츠	-215
반도체	109	사업지원	-118
에스엠	496	미디어플렉스	-672
CJ E&M	184	위메이드	-210
파라다이스	127	하나투어	-188
서울반도체	114	씨티씨바이오	-88
플랜티넷	103	CJ오쇼핑	-4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683	방송서비스	-1,187
오락,문화	630	IT부품	-678
의료,정밀기기	504	화학	-251
CJ E&M	747	CJ오쇼핑	-1,220
파라다이스	630	인터플렉스	-699
게임빌	323	솔브레인	-383
OCI머티리얼즈	277	네패스	-248
메디투스	247	서울반도체	-13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125	기계,장비	-4,107
사업지원	5,392	운송장비,부품	-2,538
전문기술	3,220	음식료,담배	-1,810
하나투어	3,357	CJ오쇼핑	-2,282
CJ E&M	2,766	매일유업	-2,164
위메이드	2,145	우리산업	-1,611
SK브로드밴드	1,935	소프트맥스	-1,185
모두투어	1,928	위닉스	-1,127
OCI머티리얼즈	1,660	윈스테크넷	-1,105
메디투스	1,274	성우하이텍	-684
파라다이스	1,202	제이브이엠	-603
씨티씨바이오	1,095	젼백스	-564
유진테크	1,090	조이맥스	-503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4,772	IT부품	-9,614
오락,문화	1,748	디지털컨텐츠	-1,563
소프트웨어	1,450	통신장비	-1,184
셀트리온	6,186	파트론	-6,078
옵트론텍	1,823	에이블씨앤씨	-1,172
하나투어	1,451	KH바텍	-1,068
파라다이스	1,166	GS홈쇼핑	-677
솔브레인	1,046	KT뮤직	-558
삼천리자전거	981	이노칩	-554
한국사이버결제	892	이지바이오	-536
인터플렉스	671	원익IPS	-535
서울반도체	652	위메이드	-528
세코닉스	605	아이디스홀딩스	-52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신도리코	21 일	에스원	15 일
롯데칠성	20 일	LG하우시스	14 일
LG화학	20 일	엔씨소프트	13 일
두산	13 일	대한제강	11 일
오뚜기	11 일	한국금융지주	9 일
하나금융지주	11 일	LG유플러스	8 일
SK이노베이션	11 일	진로	7 일
아모레퍼시픽	10 일	OCI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35 일	동양시멘트	16 일
메가스터디	31 일	OCI머티리얼즈	12 일
SBS콘텐츠허브	18 일	하이록코리아	11 일
멜파스	15 일	모두투어	11 일
크레듀	6 일	테크노세미켄	8 일
오스템임플란트	5 일	성광벤드	6 일
서부T&D	3 일	에스에프에이	6 일
원익IPS	3 일	에이테크솔루션	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호텔신라	58,726	삼성SDI	111,305
LG화학	53,861	현대차	62,629
KODEX 레버리지	50,475	SK하이닉스	61,988
현대중공업	44,627	기아차	52,593
하나금융지주	38,134	KODEX 200	39,368
SK이노베이션	28,499	한국전력	38,253
대우조선해양	26,842	OCI	34,108
우리금융	26,837	현대차2우B	24,603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4,641	서울반도체	13,913
SK브로드밴드	5,924	성광벤드	8,090
씨티씨바이오	5,346	다음	7,831
원익IPS	4,715	셀트리온	6,029
하나투어	4,373	솔브레인	4,182
KH바텍	4,106	하나투어	4,131
휴맥스	3,862	CJ오쇼핑	3,071
툽텍	3,579	인터파크	2,56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가스업	7,799	22,956	30,755
한국전력	6,077	19,848	25,925
현대차	673	16,303	16,976
KODEX 인버스	9,894	314	10,208
엔씨소프트	3,559	2,286	5,845
한국가스공사	1,678	2,931	4,610
OCI	260	2,116	2,376
이수페타시스	1,167	882	2,049
농심	908	897	1,804
코리안리	448	1,335	1,783
한화케미칼	1,002	284	1,286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사업지원	5,392	1,359	6,751
반도체	6,125	522	6,647
제약	865	4,772	5,637
하나투어	3,357	1,451	4,808
CJ E&M	2,766	206	2,972
SK브로드밴드	1,935	503	2,438
파라다이스	1,202	1,166	2,367
OCI머티리얼즈	1,660	578	2,238
모두투어	1,928	156	2,084
유진테크	1,090	602	1,692
서울반도체	555	652	1,207
휴비츠	845	222	1,067
포스코컴텍	884	148	1,03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증권	28 일	두산	18 일
부광약품	23 일	신도리코	14 일
한진해운홀딩스	15 일	하나금융지주	14 일
SK케미칼	14 일	강원랜드	10 일
진로	11 일	CJ제일제당	7 일
LG패션	10 일	락앤락	7 일
현대백화점	9 일	우리금융	6 일
에스원	8 일	대덕GDS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테크노세미켄	8 일	네패스	7 일
CJ오쇼핑	6 일	메디포스트	5 일
하이룩코리아	5 일	미래나노텍	5 일
미래나노텍	5 일	네오위즈게임즈	5 일
매일유업	4 일	서부T&D	4 일
포스코엠텍	4 일	오성엘에스티	4 일
성광벤드	4 일	비에이치아이	4 일
성우하이텍	4 일	동진세미켄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71,847	LG전자	-49,215
KT	-65,072	호텔신라	-46,741
현대차	-45,955	하나금융지주	-34,318
기아차	-41,431	삼성엔지니어링	-23,359
삼성전자	-40,169	강원랜드	-22,577
LG디스플레이	-39,678	현대중공업	-16,796
KODEX 200	-38,131	KT&G	-14,814
NHN	-27,755	우리금융	-14,471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성광벤드	-5,977	게임빌	-4,959
다음	-4,769	루멘스	-4,941
매일유업	-4,654	KH바텍	-4,192
CJ오쇼핑	-4,399	파라다이스	-3,308
네패스	-3,144	네패스	-3,147
파라다이스	-2,757	파워로직스	-2,539
솔브레인	-2,297	원익IPS	-2,153
세코닉스	-1,836	플렉스컴	-1,69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58,222	-59,109 -117,331
유통업		-2,571	-15,325 -17,896
건설업		-6,224	-1,558 -7,782
KODEX 레버리지		-36,908	-8,520 -45,427
LG디스플레이		-17,126	-16,644 -33,770
LG전자		-5,830	-11,390 -17,220
NHN		-4,122	-7,439 -11,560
롯데쇼핑		-5,789	-3,792 -9,581
KB금융		-1,749	-6,652 -8,401
롯데케미칼		-2,284	-4,329 -6,612
KT&G		-561	-5,002 -5,563
삼성전기		-581	-3,629 -4,210
우리금융		-2,166	-1,341 -3,50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계,장비		-4,107	-50 -4,156
운송장비,부품		-2,538	-204 -2,742
방송서비스		-1,585	-507 -2,091
우리산업		-1,611	-237 -1,847
에이블씨엔씨		-229	-1,172 -1,401
소프트맥스		-1,185	-56 -1,241
원스텍크넷		-1,105	-109 -1,214
성우하이텍		-684	-14 -699
포스코 ICT		-281	-411 -692
제이브이엠		-603	-50 -653
네패스		-269	-353 -622
태광		-427	-183 -610
이노칩		-42	-554 -59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엔지니어링	140	9,677	
현대중공업	40	7,899	
현대차	26	5,705	
삼성전기	66	5,514	
삼성SDI	28	4,423	
LG전자	60	4,225	
KODEX 200	164	3,975	
POSCO	13	3,957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루멘스	267	2,720	
골프존	1	2,314	
인터플렉스	26	1,169	
CJ E&M	0	894	
바이로메드	20	683	
위메이드	16	666	
윈스테크넷	4	604	
크루셜텍	35	5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929	5,185,935
POSCO	8,390	2,625,956
LG전자	20,756	1,457,075
현대차	5,870	1,285,555
SK하이닉스	41,775	1,194,775
OCI	6,222	942,579
기아차	11,922	711,721
NHN	2,394	701,411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0,286	505,026
파라다이스	6,950	161,934
파트론	6,154	104,008
에스엠	2,489	91,080
서울반도체	2,478	89,831
오스템임플란트	2,126	62,703
하나투어	809	62,188
덕산하이메탈	2,458	61,57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화학	16,290	금융업	-2,812
전기,전자	2,640	운수창고	-2,553
전기가스업	1,250	기계	-989
한화케미칼	18,412	우리금융	-1,793
SK하이닉스	2,162	KODEX 200	-1,627
한국가스공사	1,079	한진해운	-1,498
LG전자	952	두산인프라코어	-1,468
LG유플러스	725	금호타이어	-1,459
삼익악기	724	STX팬오션	-1,333
흥아해운	555	KEC	-1,089
한솔제지	486	KB금융	-826
대상	319	STX조선해양	-737
강원랜드	312	SBS미디어홀딩스	-641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1,582	제약	-675
오락,문화	665	소프트웨어	-340
컴퓨터서비스	274	도매	-219
루멘스	528	셀트리온	-1,015
파라다이스	522	에스맥	-253
포스코 ICT	350	게임빌	-248
원익IPS	330	큐로컴	-211
차바이오앤	321	디아이디	-200
엠케이전자	300	SM C&C	-191
서울반도체	200	유원컴텍	-189
이녹스	178	상보	-143
씨젠	173	대아티아이	-141
멜파스	156	KG이니시스	-13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7/12(금)	07/15(월)	07/16(화)	07/17(수)	07/18(목)
외국인	-10,165.1	-178.7	676.0	140.8	111.9	31.8	131.1	-113.3
기관계	8,856.2	415.5	-244.3	-149.9	-39.2	-103.2	230.1	0.0
(투신)	-410.2	-340.3	-442.3	-129.8	-6.9	-80.4	32.8	-100.4
(연기금)	4,917.8	517.4	-43.5	6.1	-33.7	-1.6	152.2	142.1
(은행)	-200.5	-149.2	-1.4	-14.1	-12.0	-13.4	-24.3	-8.8
(보험)	1,080.1	82.3	28.0	-22.5	2.1	-5.4	24.5	5.2
개인	1,841.7	-262.2	-377.4	5.7	-62.8	69.4	-357.2	115.3
기타	-532.8	25.4	-54.3	3.4	-9.9	2.1	-4.0	-1.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7/11(목)	07/12(금)	07/15(월)	07/16(화)	07/17(수)
KOSPI	2,033.3	1,825.7	1,997.1	1,877.6	1,870.0	1,875.2	1,866.4	1,887.5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7,536.5	17,240.1	18,059.8	17,739.5	17,459.4
(증감액)	1,996.5	3,611.7	334.1	306.8	-296.4	819.7	-320.3	-280.1
(회전율)	50.3	34.2	26.7	31.4	29.0	26.7	27.2	34.0
실질예탁금 증감	-3,502.6	3,775.5	-13,274.3	292.6	-214.6	250.8	-357.7	-390.0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12.9	4,504.8	4,469.8	4,478.0	4,507.6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15.1	103.2	81.7	88.0	136.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7/11(목)	07/12(금)	07/15(월)	07/16(화)	07/17(수)
전체 주식형	92,616	-582	626	67	-29	125	24	-72
(ex. ETF)		-2,370	301	46	-20	17	41	-11
국내 주식형	69,457	1,456	722	74	0	134	29	-55
(ex. ETF)		-344	394	52	9	26	46	7
해외 주식형	23,159	-2,037	-95	-7	-29	-9	-5	-17
(ex. ETF)		-2,025	-93	-7	-29	-9	-5	-17
주식 혼합형	9,639	-282	77	-2	-11	92	-1	-2
채권 혼합형	23,602	4,901	-123	-104	55	-54	8	-62
채권형	53,920	1,307	-339	-116	223	-128	-109	-264
MMF	82,078	18,016	13,193	135	-377	-1,250	1,604	-74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7/12(금)	07/15(월)	07/16(화)	07/17(수)	07/18(목)
한 국	-9,037	-144	727	125	100	28	117	-97
대 만	1,268	1,704	454	379	321	220	261	228
인 도	12,360	-981	-955	-853	-29	-52	-	-
인도네시아	-418	-365	-20	28	2	-6	14	-
태국	-2,461	66	-58	72	14	16	26	-
남아공	2,505	56	-186	18	-94	3	-141	-
필리핀	1,507	11	28	22	6	5	-4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7/11(목)	07/12(금)	07/15(월)	07/16(화)	07/17(수)	07/18(목)
회사채 (AA-)	3.29	3.30	3.33	3.36	3.36	3.37	3.33
회사채 (BBB-)	8.80	8.94	8.97	9.01	9.01	9.01	8.96
국고채 (3년)	2.82	2.84	2.86	2.89	2.88	2.89	2.85
국고채 (5년)	2.97	3.10	3.11	3.15	3.14	3.16	3.11
국고채 (10년)	3.16	3.37	3.38	3.45	3.44	3.47	3.41
미 국채 (10년)	1.76	2.53	2.57	2.55	2.53	2.49	-
일 국채 (10년)	0.80	0.81	0.81	0.82	0.82	0.82	-
원/달러	1,070.60	1,122.55	1,124.50	1,122.00	1,118.00	1,121.60	1,126.30
원/엔	1,243.73	1,141.00	1,132.32	1,122.90	1,124.07	1,126.11	1,123.27
엔/달러	86.08	98.64	99.31	99.92	99.46	99.60	100.27
달러/유로	1.32	1.31	1.30	1.30	1.31	1.31	1.31
DDR3 1Gb (1333MHz)	0.67	1.27	1.28	1.28	1.28	1.27	-
DDR3 2Gb (1333MHz)	1.07	1.78	1.78	1.78	1.75	1.76	-
NAND Flash 16Gb (MLC)	1.89	2.97	2.98	2.98	2.98	2.98	-
CRB 지수	295.01	286.68	286.66	286.80	288.48	287.96	-
LME 지수	3,454.5	3,031.6	3,025.7	2,993.8	3,023.0	2,989.0	-
BDI	699	1,139	1,149	1,151	1,152	1,151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104.92	105.95	106.32	106.00	106.48	-
금 (달러/온스)	1,663.40	1,279.90	1,277.60	1,283.50	1,291.00	1,277.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9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7월 12일	242.72	243.45	1.11	0.73	0.72	127,516	112,486	-4,691
7월 15일	243.43	244.90	1.06	1.47	0.79	230,545	112,726	240
7월 16일	242.02	242.65	1.03	0.63	0.51	157,196	110,193	-2,533
7월 17일	244.82	244.65	1.03	-0.17	0.92	232,299	110,780	587
7월 18일	242.92	243.45	1.02	0.53	0.28	171,566	109,056	-1,72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기금
			증권	투신	은행	보험		
7월 12일	-2,610	1,416	1,475	2,231	-1,063	-71	402	-26
7월 15일	-1,413	-1,137	2,313	765	576	-78	745	305
7월 16일	-1,660	-392	2,424	2,299	-110	-23	68	190
7월 17일	6,313	-3,034	-3,685	-3,914	226	-15	26	-2
7월 18일	-3,507	817	2,834	3,012	-348	93	16	59
누적포지션	-8,546	1,880	5,817	-322	6,622	-246	-149	-9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7월 12일	663	672	9	616	658	42	48	14	-33	4,953	8,492
7월 15일	567	577	10	546	555	9	21	22	1	4,953	8,494
7월 16일	566	469	-96	545	460	-85	21	9	-11	4,957	8,485
7월 17일	447	902	455	434	858	425	13	44	31	4,945	8,503
7월 18일	878	553	-325	784	542	-242	94	1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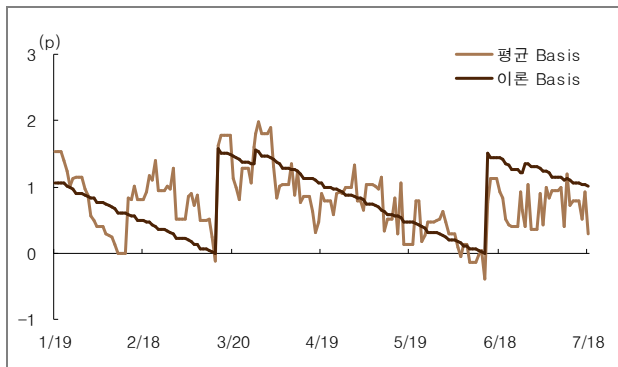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16.06	-16	101,666	0.30	257.50	15.00	29	4	20.95
16.09	3,082	137,874	0.52	255.00	12.80	23	11	20.51
16.39	2,174	143,337	0.90	252.50	10.45	158	19	18.61
16.64	754	141,698	1.45	250.00	8.40	456	57	17.97
16.89	1,350	111,287	2.21	247.50	6.75	1,555	175	18.46
17.34	68	22,430	3.25	245.00	5.25	7,438	244	18.62
17.63	378	11,667	4.50	242.50	3.95	12,676	120	18.67
18.66	281	3,157	6.15	240.00	2.97	38,325	301	19.14
17.73	15	722	7.60	237.50	2.18	136,844	1,416	19.55
17.93	40	290	9.50	235.00	1.57	125,258	-1,058	19.97
17.22	-27	129	11.45	232.50	1.13	122,403	228	2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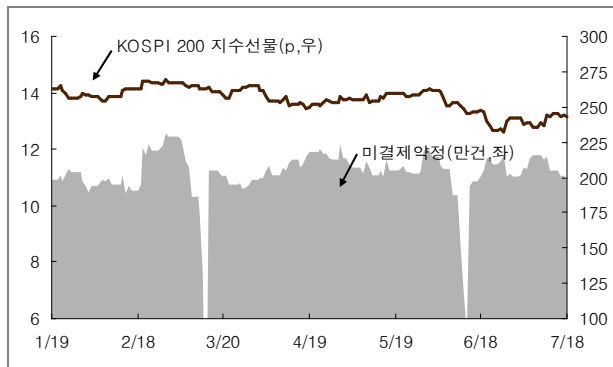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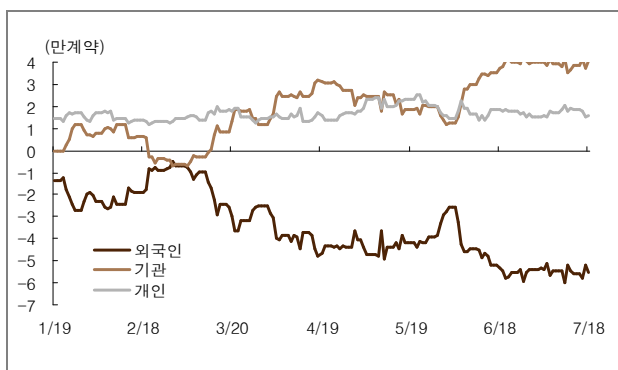
- 평균 Basis: 0.28 (전 거래일 대비 0.64 하락)
- 이론 Basis: 1.02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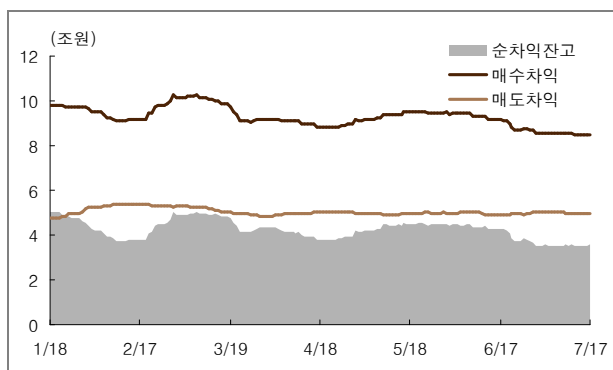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724 계약 감소한 109,056 계약
- 선물가격(243.45): 전 거래일 대비 1.2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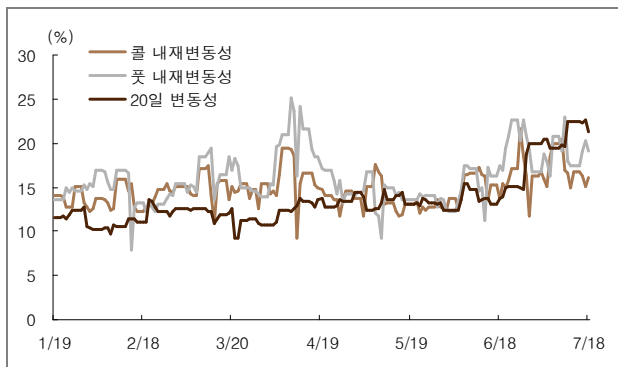
- 외국인: 3,507 계약 순매도
- 기관: 2,834 계약 순매수 / 개인: 817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830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2,420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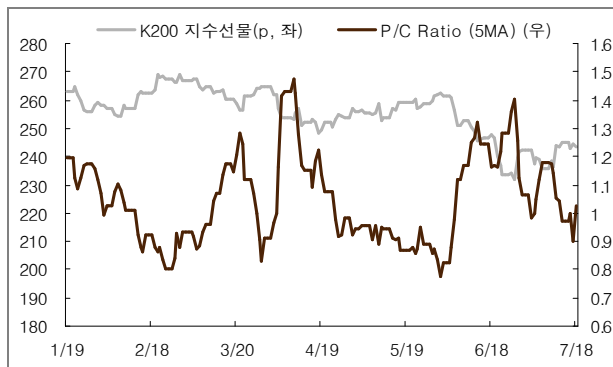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6.1% / 풋 19.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21.34%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6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3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8	9	10	11	12
유럽> 7월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12.6, -11.4, -11.6) 日> 5월 경상수지 YoY (58.1%, 91.6%, 100.8%) 5월 무역수지 - BOP (억엔) (-9,067, -9,051, -8,288)	美> 6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93.5, 94.9, 94.4)	韓> 6월 실업률 SA (3.2%, 3.2%, 3.2%) 6월 은행가계대출 (KRW, 조) (469.9, n/a, 465.1)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4.0%, n/a, -11.7%) 5월 도매판매 MoM (1.6%, 0.3%, 0.7%) FOMC 의사록 공개 中> 6월 수출 YoY (-3.1%, 3.7%, 1.0%) 6월 수입 YoY (-0.7%, 6.0%, -0.3%)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2.50%, 2.50%, 2.5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6.0만, 34.0만, 34.4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97.7만, 295.5만, 293.3만)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발표 (0.10%, 0.10%, 0.10%)	美> 6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0.8%, 0.5%, 0.5%) 유럽> 5월 유로권 CPI MoM (0.1%, n/a, 0.1%) 5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0.3%, 0.4%, 0.5%) 日> 6월 산업생산 MoM (1.9%, n/a, 2.0%)
15	16	17	18	19
美> 5월 기업재고 (0.1%, 0.0%, 0.2%) 中> 2분기 실질 GDP YoY (7.5%, 7.5%, 7.7%) 6월 산업생산 (8.9%, 9.1%, 9.2%) 실적발표> 美 시티그룹	美> 6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5%, 0.3%, 0.1%)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57, 51, 52) 유럽> 6월 유로권 CPI MoM (0.1%, 0.1%, 0.1%) 실적발표> 韓 삼성엔지니어링 美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韓> 6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4%, n/a, -2.6%)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6%, n/a, -4.0%) 6월 건축허가 MoM (-7.5%, -1.5%, -2.0%) 7월 주택건설 착공 MoM (-9.9%, 5.0%, 8.9%) 연준 베이지북 발간 中> 6월 FDI YoY (20.1%, 0.7%, 0.3%) 실적발표> 韓 KT&G 美 BOA, 인텔, 이베이 샌디스크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5만, 36.0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295.9만, 297.7만) 6월 경기선행지수 (n/a, 0.3%, 0.1%) 7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8.0, 12.5) 실적발표> 韓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美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즌, 구글	日> 5월 동행지수 CI (n/a, n/a, 105.9) 5월 선행지수 CI (n/a, n/a, 110.5) 실적발표> 美 월풀, GE
22	23	24	25	26
美> 6월 기준주택매매 MoM	美> 6월 신규주택매매 MoM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유럽> 6월 유로존 제조업 PMI 6월 유로존 서비스 PMI 6월 독일 제조업 PMI 6월 독일 서비스 PMI 中> 6월HSBC 플래시제조업PMI 日> 6월 조정상품거래수지 6월 무역수지-수출총액 YoY 6월 무역수지-수입총액 YoY	韓> 2분기 GDP QoQ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6월 내구재 주문 유럽> 6월 유로권 소비자자기대지수	韓> 6월 소비자자기대지수 美> 7월 미시간대소비자물가지수 日> 6월 국내 CPI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